

[미국-뉴욕]미국-일본 양국간 유기식품 무역절차 간소화 추진



미일 양국은 경비와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을 발표함에 따라, 정부와 산업 지도자들은 두 나라간 유기식품 무역이 증대될 것이라 밝혔다.

미국농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, 오는 1월 1일부터 일본이나 미국에 유기농으로 등록된 제품은 양국 어디에서나 유기식품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

빌색 미농무부 장관은 언론에서 본 협정은 미국농무성의 강화된 심사기준이 반영된 결과이며, 농축산업 종사자와 기타 관련 업자들이 아시아의 최대 유기농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설명했다. 덧붙여 본 협정은 미국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며 아시아에 추가적인 유기농산물 거래협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.

미국이 일본으로 유기작물 수출을 시작한 것은 2012년 160억불을 기록한 콜리플라워 판매가 기점이 되었다고 한다. 미국산 유기식품 중 브로콜리, 포도, 딸기 그리고 그레이프프루트의 수출은 각각 10억불에 달하였고, 일본에 상당량 판매된 수출 품목에는 레몬, 블루베리, 오렌지, 피망, 토마토 및 상추 등이 있다.

미국무역대표부 미셸프로만은 언론에서, 9월 26일에 확정된 이 협정이 미국의 농업 종사자 및 가공업자들이 성장하는 일본 유기농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. 보도에 따르면, 본 협정 이전에는 양국 모두에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 종사자 및 관련 업자들이 양국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서를 각각 취득해야 했다고 설명한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에 등록된 업자의 경우, 일본 유기농시장에 판매할 때 유기농법으로 재배됐음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.

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재된 미농무부 한 관계자는, 일년간 일본에 판매된 유기농산물의 총 판매량은 800억불에 이르며 새로운 협정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대미수출량은 세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.

미국 유기무역협회의 로라바차 부사장은, 본 기념비적인 협정으로 이미 성장세에 있는 미국 유기

농산물 부분에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, 시장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 또한 이는 두 국가와 유기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.

<저작권자 ©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& kati.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